

2020년도 제3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61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0년 6월 5일
4. 회부일자 : 2020년 6월 10일

II.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조 7,067억 9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2조 4,677억 7천 1백만원에

대비하여 5.3%(2조 2,390억 2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조 2,736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1조 8,924억 7천 9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조 4,331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465억 4천 3백만원) 감소하였음.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4,706,793	42,467,771	2,239,022	5.3
일 반 회 계	32,273,686	30,381,207	1,892,479	6.2
특 별 회 계	12,433,107	12,086,564	346,543	2.9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5억 3천 7백만원 대비 48억 7천 3백만원(14.5%) 증가한 384억 1천만원임.
-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기타사용료) 1억 9천 8백만원이 감소했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건립)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0억 7천만원이 증가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	
38,410	33,537	4,873	1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용료 △198 ▪ 국고보조금 4,813 ▪ 국고보조금(기금) 258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72억 8천 2백만원에서 8.3%(542억 3천만원) 증가한 7,115억 1천 2백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액내역은 다음과 같음.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8억 4천 3백만원
- 전태일기념관 운영 7억 7천 2백만원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조성 8억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4억 1천 4백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83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신규)	17억 8천만원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신규)	9천 6백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신규)	47억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10억원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지원(신규)	2천 1백만원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9억 2천만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13억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2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신규)	43억 2천 9백만원
사회투자기금 전출	30억원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103억원

등 총 24개 사업에서 54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711,512	657,282	54,230	8.3
일반회계	계	702,546	648,316	54,230	8.4
	행정운영경비	476	476	-	-
	재 무 활 동	73,775	69,775	4,000	5.7
	사 업 비	628,295	578,056	50,230	8.7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8,967	8,967	-	-
	사 업 비	8,967	8,967	-	-

Ⅲ.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가. 편성배경 및 규모

- 코로나19와 미·중 분쟁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Delta 0.2\%$ 로 하향 조정하고, 수출 또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국내경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다만 5월 이후로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심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등으로 위축되었던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되었음.
- 이에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 ▶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보강 패키지(18조 9천억원) 등 35조 3천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2020.6.4.).
- 서울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조 2,390

억원 증액(5.3%)된 44조 7,067억 9천만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추경의 주요내용은 ▶공공 및 뉴딜일자리 창출(3,022억원), ▶그린 뉴딜 활성화(750억원), ▶스마트시티 실현(573억원), ▶경기부양 SOC 투자 확대(810억원), ▶스타트업 기업 육성(658억원), ▶로컬 자생력 강화(303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 의무경비(1조 2,219억원) 등 총 2조 5,27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2,880억원을 감액하였음.

나.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1) 세 입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384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7천 3백만원(14.5%)이 증액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총 계	38,410	33,537	4,873
소 계	33,935	29,062	4,873
사용료수입	380	578	△198
서울품물시장 점포사용료	380	578	△198
국고보조금	33,555	28,484	5,071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4,750	-	4,75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9,230	8,642	258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330	267	63

- 국고보조금은 50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한 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서 47억 5천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에서 2억 5천 8백만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6천 3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음.
- 사용료수입은 1억 9천 8백만원이 감소한 바, 코로나19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으로 인해 서울풍물시장의 사용료를 6개월간(2020년 2월~7월) 50% 감면한 것임.
-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부정확한 세입 추계나 결산 착오가 아닌 국고보조금 매칭에 따른 증액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증액으로 볼 수 있음.

(2) 세 출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7,115억 1천 2백만원으로, 24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542억 3천만원이 증액(8.3%)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 예산	추경 예산(안)	증 감	추경사유
총 계	(x28,484) 657,282	(x33,555) 711,512	(x5,071) 54,230	
소 계	(x10,469) 207,996	(x15,540) 262,226	(x5,071) 54,230	
노동정책담당관	9,612	12,090	2,478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62	125	63	노후시설 개보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6,981	7,824	843	시립센터(동북권, 서남권) 추가 설치
전태일기념관 운영	2,393	3,165	772	전태일 사망 50주기 기념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조성	176	976	800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및 장비 지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x9,993) 164,789	(x15,001) 193,283	(x5,008) 28,49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279	8,693	414	순환창업 생태계 조성
신용보증재단출연	62,665	80,965	18,300	지속적 보증공급을 위한 서울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추가 출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0	(x4,750) 4,750	(x4,750) 4,75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국비 추가내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0	1,780	1,780	서울소재 영세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 및 온라인 소셜커머스 입점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건립)	(x8,642) 19,276	(x8,900) 20,187	(x258) 911	중기부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 당해 주차장 건립 사업 추진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	3,252	3,502	250	여름철 에어컨으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 예산	추경 예산(안)	증 감	추경사유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3,896	4,296	400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선정 사업비 지원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 운영	778	978	200	온라인 장보기·배송 지원시장 확대 40개 시장 추가 도입
2020년 화재알림 시설 설치 사업	(x293) 319	(x293) 348	29	국비추가내시사업 (3개 자치구, 3개 시장)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x1,058) 1,124	(x1,058) 1,488	364	국비추가내시사업 (5개 자치구, 6개 시장)
전통시장 온라인 상점 구축 지원	0	96	96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자사몰 구축 및 상점별 브랜딩, 오픈마켓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65,200	66,200	1,000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경제활성화자금 증액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추가 자금수요 대응
사회적경제담당관	(x476) 14,995	(x539) 27,954	(x63) 12,959	
공정무역 위탁 기관 긴급지원	0	21	21	시민청 폐쇄로 인한 민간위탁시설 손실보전 (3~5월)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x267) 802	(x330) 991	(x63) 189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시비 매칭 (국비 63백만원)
공동주택단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500	2,420	920	추가선정 단지 사업비 지원(20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380	4,680	1,300	자치구 주민기술학교 확대(17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x209) 5,313	(x209) 8,513	3,200	자치구 나눔반장 확대(300백만원) 코로나 대응 사업개발비(400백만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지원 (2,500백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0	4,329	4,329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2,309백만원) 긴급 사업비 지원(2,0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 예산	추경 예산(안)	증 감	추경사유
사회투자기금 전출	4,000	7,000	3,000	고용불안정 노동자 긴급지원 소액융자 (5백만원×600명)
제로페이담당관	18,600	28,900	10,300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18,600	28,900	10,300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편성 취지가 적합한지(적합성), 본 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과 포스트코로나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의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에 적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사업은 추경을 통해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빈약하고, 일부는 예산만 편성되었을 뿐 방침없이 부실하게 수립되는 등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예산 집행 시 불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됨.

2. 신규 사업 검토

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31쪽)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47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4,750) 4,750	(x-) 0	(x4,750) 4,750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소상공인과 확진자 방문 발생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으로 재료비, 홍보·마케팅, 인건비, 공과금 등의 항목에 점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개요 >

- ▶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소상공인 및 확진자 방문·발생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기준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적용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등록 사업자 등
 - 소상공인에 한하여 자치구 상황에 맞는 별도기준 마련 가능

- ▶ 지원액 : 최대 300만원
 - 기 지원(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
- ▶ 소요예산 : 4,750백만원(100% 국비)
- ▶ 지원항목
 -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이 사업은 당초 4월부터 추진할 계획¹⁾이었으나,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대구와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 내 우선지원 후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5월 22일 해당 국비를 교부받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임.
-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는 추가경정예산 중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확정·통보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이를 집행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인 만큼 국비 통보 직후 피해 소상공인들의 생계보전을 위해 즉시 지급했어야 하나, 별도의 조치 없이 추경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7월초에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음.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계획, 소상공인정책담당관-6795(2020.04.16.)

- 이로인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영업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음.
-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피해기업 외에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영업중지 등의 행정명령에 순응하여 영업 손실을 입은 다수의 선량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별설명서 34쪽)

-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입점 기회 제공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을 증진시키고자 17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780	0	1,780
사 무 관 리 비	10	0	10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1,770	0	1,770

- 온라인 입점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상품 등록비 등을 지원하는데 2억 4천만원을 편성함.
- 소비자에게는 할인쿠폰 발행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진을 돕고자 온라인 소셜커머스 기획전²⁾에 15억 3천만원을 편성함.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와 유통구조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온라인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그러나 예산편성의 산출 근거로 제시한 약 300개소의 온라인 소셜커머스 등록비용 지원과 한 차례의 특별기획전으로, 매출급감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또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예정인 ‘온라인 판로 강화사업’과 대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다를 뿐, 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유사함.
 - 온라인 판로 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상품 신뢰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간 쇼핑몰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역량 강화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상품판매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지원, 인플루언서판매자 양성 등의 세부사업을 계획 중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2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2)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 주간 5일간 추진 예정

- 정부에서도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³⁾을 추진하고 있음.
-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다.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

(사업별설명서 65쪽)

-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온라인 쇼핑의 일상화에 대비하고자 전통시장 특화점포별로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정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	0	96

- 이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지원 전문기업과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서울시는 점포별 상점 브랜딩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문기업은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관련 컨설팅과 온라인몰 운영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를 지원할 계획임.

3)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진출기반 마련과 온라인 채널 별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만개 업체 지원 및 5,500명 교육 계획

- 총 12개 시장을 선정하여, 시장당 8백만원(점포당 1백만원*8개 점포)을 지원할 예정임.
- 유통환경과 소비구조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온라인몰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사업에서도 민간 플랫폼제공사·운영사·상인회·배달대행사 간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주문·결제 방식의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온라인 장보기·배송 지원시장은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8천 3백 만원을 편성해 사업을 시작하였음.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3차 추경예산(안)	1차 추경예산	2020년 본예산
계	978 (+200)	778 (+183)	59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48 (+200)	748 (+183)	565
자치단체자본보조	30	30	30

- 현재 16개 자치구가 선정되어, 도봉구의 창동신창시장, 종로구의 통인시장, 동작구의 성대전통시장 등은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영

중에 있음.

<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시장 현황 >

서비스 개시	개소	시 장 명
합 계	16	
4월	3	창동신창(도봉), 통인(종로), 성대전통(동작)
5월	3	연서(은평), 포방터(서대문), 고척근린(구로)
6월	5	금남(성동), 남문(금천), 신영(양천), 경동(동대문), 도곡(강남)
7월	5	장미원골목(강북), 화양제일(광진), 석촌(송파), 송화벽화(강서), 동원전통종합(중랑)

- 온라인 장보기 수요 증가에 따라 서비스 개시를 희망하는 상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추경을 통해 40개소의 시장을 추가 선정하고 온라인 상품등록 콘텐츠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 등에 시장 당 5백 만원을 지원할 예정임(2억원 증액).
- 전통시장의 온라인 쇼핑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들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상시장 선정과 지원에 있어 사업 시행속도를 높여야 할 것임.
- 또한 유사 목적의 사업들을 분산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라.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 지원

(사업별설명서 78쪽)

-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폐쇄된 시민청에 입점한 민간 위탁시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억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편성된 사업이 없어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음.

<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 간 위 탁 금	21	0	21

- 시민청에 위치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이하 “지구마을”)’은 2013년 개장하여 공정무역 물품 판매와 카페 공간을 운영 중에 있음.
- 시민청 폐쇄(2020.2.24.)로 인해 현재까지 약 4개월간 휴관하면서 지구 마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2천 1백만원, 임대료 8백만원, 재료비 1천 7백만원 등 총 4천 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손실 현황 >

- ▶ 손실기간 : 2020.2.24.~
- ▶ 인 건 비 : 20,806천원
 - 인력규모 : 8명(정규직 2명, 상시노동자 6명)
 - ※ 최근 3개월 평균 실수령액 ; 9,907,600원

- ▶ 임 대 료 : 7,700천원
 - 소관부서 : 사회적경제담당관
- ▶ 재 료 비 : 17,195천원
 - 2019년도 평균 원료비를 통해 추정
 - 정확한 산출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후 확정예정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메르스 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파동 등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손실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에 맞춰 인건비 손실 금액의 70%를 보상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한 것임.
-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에 처한 수탁기관의 손실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추경 편성이나, 3개월분(3~5월)에 대한 보상에 불과해 휴관 연장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별설명서 96쪽)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고용불안 상황에 처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분야의 신규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고자 43억 2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329	0	4,329

-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3억 9백만원)은 유급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최대 3명까지, 5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됨.

<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안) 개요 >

-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5년)까지 지원 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 ▶ 지원내용 : 신규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7원/월)의 70%
- ▶ 지원인원 : 300명(기업당 최대 3인)
- ▶ 지원기간 : 2020.8월 ~ 12월(5개월)
 - ※ 지원기간 종료 후 계속 고용시 1년 추가지원 검토

-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비 지원’ 사업(20억 2천만원)은 경영악화 상태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150개 사회적기업에 최대 2천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임.

< 사회적경제기업 긴급 사업비 지원 사업(안) 개요 >

-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 ▶ 지원내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익구조 기반마련 사업개발비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등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지원

- ▶ 지원규모 : 150개 기업
- ▶ 지원금액 : 기업당 1,000~2,000만원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경기침체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유지하게 하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다만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긴급 사업비 지원 사업 모두, 지원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증액 사업 검토

가. 전태일기념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12쪽)

-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전태일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고 노동의 가치를 전달하는 추모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7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하였음.

< 전태일기념관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165	2,393	772
사 무 관 리 비	200	200	0
민 간 위 탁 금	2,912	2,140	772
민 간 위 탁 사 업 비	53	53	0

-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⁴⁾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여 9월부터 11월 두 달간 개최되며, 다양한 노동운동 체험과 문화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노동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청계천 주변에서 10개의 세부사업을 개최할 예정임.

4) 노동·문화계, 시민단체, 서울시, 전태일재단 등으로 구성

< 전태일 50주기 기념사업 추진계획(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	시기	장소	예산	
1.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속가능한 사회와 노동의 미래」 - 아시아 노동시장 및 고용형태의 변화, 노동의 미래에 관한 토론	10월 중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180	추경안
2. 찾아가는 전태일예술관 - ‘전태일 버스’와 ‘노동운동 해설사’가 대학교, 마이스터고, 자치구 축제 등 방문	9.15. ~11.15.	대학교, 특성화고, 자치구 축제	218	
3. 노동문화박람회 - 노동운동단체(전국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노동운동문화 전달 - 노동문화 체험관 운영, 노동미술제 개최	10.31. ~11.1.	청계천로 ~ 무교로	374	
4. 전태일 문화거리 조성 - 전태일기념관부터 오간수교까지 노동미술문화거리로 조성	6~12월	전태일기념관 ~ 오간수교	170	본예산
5. 노동문화제(종합연희극) -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20년판 민중문화 공연	10월 중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200	
6. 동아시아민중연극제 - 동아시아 민중연극 공모 추진	9월 중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100	
7. 특별기획전시 청계피복노동조합 -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재조명	9.1.~ '21.2.28.	전태일기념관	100	
8. 자체 공연작 개발	3~11월	전태일기념관	80	
9. 전태일 학술토론회 - 전태일과 전태일 후 50년에 대한 연구성과 공유 및 토론	11월 중	전태일기념관	50	
10. 전태일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11.13. 예정	TBS	100	

- 이 중 전태일 문화거리 조성, 노동문화제 등 중 7개는 당초 2020년 본 예산으로 진행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국제학술대회 개최(1억 8천

만원), 찾아가는 전태일예술관(2억 1천 8백만원), 노동문화박람회(3억 7천 4백만원)를 추진할 계획임(전체 사업비 15억 7천 2백만원).

-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념하는 행사의 취지나 목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아직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는 상황에서 추념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 현재 전태일기념관은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휴관 중⁵⁾이며, 추경 추진행사인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민중 연극제 등은 하반기 코로나19의 재유행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등의 사업 추진 검토와 통합이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라는 의견으로 ‘조건부적정’ 판단을 내렸음.

심사결과 및 내용	[조건부 적정]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등 사업 추진 검토 - 국제학술대회, 토론회 등 통합이 가능한 사업은 조정 후 추진
--------------	--

-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추이에 맞춰 정상 추진이 가능한 범위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5) 2020년 5월 29일~

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별설명서 17쪽)

- 배달노동자인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976	176	800
사 무 관 리 비	176	176	0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800	-	800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확산과 플랫폼노동 형태의 증가가 맞물려 배달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별다른 사전교육 없이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시간의 이론중심 교육은 의무화됨.
- 지난 5월 1일 열린 배달노동자들과 시장 간담회에서는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음.
- 이번 추경안은 약 2천여명⁶⁾의 플랫폼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5억원, 보호장구 구매비용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음.

6) 서울지역 전체 약 1만여명으로 추산

산출내역		
○ 플랫폼 배달 노동자 안전교육 지원 250,000원*2,000명	=	500,000천원
○ 보호장구 구매비용 지원 등(교육참여자) 150,000원*2,000명	=	300,000천원

- 배달노동자들이 노동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보호장구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다른 분야의 위험노출 노동자에게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배달 플랫폼의 교육비용의 산출근거로 제시한 1인당 25만원의 교육비용은 현실성이 낮아 보다 세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또한 일교육 참여를 독려하고자 반대 급부로 제공하는 보호장구⁷⁾도 라이더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보호장구 외 다른 인센티브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별설명서 22쪽)

- 소상공인에게 창업지원·역량강화·재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2억 7천 9백만원에서 4억 1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음.

7) 헬멧(5만원)+안전장갑(3만원)+보호대(7만), 세트 기준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8,693	8,279	414
사 무 관 리 비	110	11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	7	0
민간경상사업보조	800	800	0
민 간 위 탁 금	7,452	7,362	90
민 간 위 탁 사 업 비	74	0	74
기 타 자 본 이 전	250	0	250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이하 “종합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자영업지원센터,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진입기) 창업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 (운영성장기) 경영개선 지원(자영업클리닉, 협업화 지원 등)
 - (퇴로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 ▶ 자영업지원센터,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등

- 추경안은 생활상권⁸⁾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 임팩트 창업’ 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상권혁신아카데미’ 를 새로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장 임차료(9천만원), 인테리어 설계비(7천 4백만원), 보증금(2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한 것임.

8) 도보로 이동해 생활 필수품 등을 구매하는 동네가게들로 구성된 상권

- 상권혁신아카데미는 생활상권 내 점포와 조화될 수 있는 혁신업종을 선정해 창업을 지원하며, 골목산업 대표 업종별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보완하고, 아카데미 이수자의 창업업체를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선순환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 상권혁신아카데미 운영계획(안)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권혁신아카데미	테스트베드 현장실습	실전창업지원	창업선순환
-비즈니스모델 개발 -기본 창업교육 -1:1 전담멘토 코칭	-팝업스토어 운영 -팝업스토어를 통한 혁신모델 고객 검증	-임차료·시설비· 마케팅 등 창업 비용 융자 지원	-선배 창업업체를 현장교실로 활용 -스쿨수료생 고용시 인턴비용 지원

- 생활상권 내에서 전략 업종을 선정·창업하고, 다시 선순환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현재 종합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유사·중복 우려가 있음.

- 창업교육을 통한 지역별 소상공인 네트워크 형성, 지역별 특화업종과 연계한 성공 자영업자와 1:1 멘토링 등을 실시 중임.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창업지원 현황 >

상담	교육	현장체험	창업 전 컨설팅	창업	창업 후 컨설팅	자금지원
상권분석 창업적격 진단	온·오프라인 업종별 실무교육	성공 자영업자와 1:1멘토링	사업계획 수립지원		경영전략 수립지원	50백만원 이내

< 창업교육 세부내용 >

구 분	과 목	내 용	시 간
오프라인 교육 ⁹⁾ (13H)	창업 준비절차 및 창업가 정신	창업실태, 성공·실패 사례	2H
	상권입지 분석·활용	상권분석 개념 및 시스템 활용	2H
	사업계획서 이론·실습	사업계획서 및 손익계산서 작성	2H
	세무	소상공인 세무전략 및 절차	2H
	마케팅(SNS 등)	소셜마케팅 트렌드, 활용 노하우	2H
	노무 및 직원관리	노동법(근로계약서)과 4대 보험	1.5H
	다양한 지원사업 소개	창업보증 및 종합지원사업 안내	1.5H
온라인교육 (20H)	5개 업종별 (외식업,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인터넷업) 창업과정운영		

- 또한 관내 다수의 창업지원시설이 존재하고 있어¹⁰⁾, 별도의 상권혁신 아카데미나 추가적인 창업교육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의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됨.

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27쪽)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의 급증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운용배수가 법정 최고 한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3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음.

9) 자영업지원센터 자체 교육 및 구청, 상공회 등 유관기관 공동개최

10) 창업보육기관 : 26개소(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교육·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창업정보 교류공간 : 13개소 (창업상담, 인적네트워크 구축, 각종 창업정보 및 교육 제공 등)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출 연 금	80,965	62,665	18,300

- 서울시는 재단의 보증정책 목표달성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6.3배)¹¹⁾ 유지를 위해 당초 90억원¹²⁾을 출연하였음.
-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특별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0.3.24.)을 통해 36억 6천 5백만원¹³⁾,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0.5.8.)을 통해 500억원을 추가 출연하였음.
- 이와 같은 보증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민생위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83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것임.

< 2020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3차 추경예산(안)	2차 추경예산	1차 추경예산	2020년 본예산
80,965 (+18,300)	62,665 (+50,000)	12,665 (+3,665)	9,000

11) 재단은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로 5~7배를 유지해 왔음.

12) 보증재원 69억 2천만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0억 8천만원

13)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지원 급증으로 발생한 업무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위한 시니어 기간제 인력 인건비 6억 6천 5백만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재원 30억원

○ 재단의 보증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특별보증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이미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운용배수는 9.9 배에 이릅니다.

- 재단은 보증 해지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금액 감액 유도 및 전환, 반송하여 보증여력을 확대하였습니다.

< 2020년 신용보증 공급 실적 >

(5.31. 기준,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보 증 공 급	건 수	68,556	61,000	119,582	196.0%
	금 액	18,780	20,000	37,258	186.3%
보 증 잔 액	건 수	211,023	243,000	306,360	-
	금 액	42,377	47,000	69,661	-

○ 현재 진행 중인 보증과 신규 예상 보증을 감안하면 12월 말 예상 잔액은 8조 3천 5백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예상 운용배수는 13.1배에 달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보증한도 (15배)¹⁴⁾의 한계치에 근접할 것으로 우려됨.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 보증잔액 산출내역 >

(5.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직접보증	위탁보증	합 계
'19년말 보증잔액 (A)	42,377	-	42,377
'20년 보증공급 (B) [a+b+c+d]	42,436	12,730	55,166
1.1.~4.30. 공급 (a)	25,678		25,678
4.30 현재 진행 중 (b)	4,127	-	4,127
*추가진행 보증 (c)	12,631		12,631
기업은행 초저금리 (d)	-	12,730	12,730
보증해지 (C)	14,000	-	14,000
가해지	9,974	-	9,974
예정	4,026	-	4,026
'20년 12월말 보증잔액 (A+B-C)	70,813	12,730	83,543

* 추가진행(6월~12월) : 코로나 정책자금(골목상권119, 대한대출) 1,676억원
+ 6월 이후 신규보증 10,955억원

⇒ 6월 이후 신규보증 추산 : 18,780억원(2019년 보증실적)/12개월x7개월

* 위탁보증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관련 보증

- ▶ 12월말 기준 예상 기본재산 : 6,373억원
- '19년말 6,388억원 + 출연금1,827억원 + 수익653억원 - 비용2,495억원
- ▶ 12월말 기준 예상 운용배수 : 13.1배(83,543/6,373)
- ▶ 183억원 출연시 예상 운용배수 : 12.7배
- 12월말 보증잔액 83,543억원 / 12월말 기본재산 6,556억원 = 12.7

※ 수익(이자 등) 및 비용 항목(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은 1년분을 월할 계산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는 안정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출연금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됨.

- 다만 이번 183억원 출연 이후에도 운용배수는 12.7배로 예상되어 여전히 적정 운용배수(5~7배)의 2배에 달하며, 코로나19와 미·중 분쟁 등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 경기 침체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어, 올해 보증실적은 예상치¹⁵⁾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 10.5% (보증기관 운용배수 9.5배) 이하인 은행은 배당을 제한받고, 8% (보증기관 운용배수 12.5배) 이하인 은행은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재단은 최소 12배 이하의 운용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406억원의 출연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됨.
-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책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47쪽)

- 주민생활 중심의 관계기반 생활상권을 조성하여 생활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과 ‘생활상권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사업은 상점가 중심의 ‘세력권’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이용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상인 관계기반의 ‘생활상권’을

15) 6월 이후 신규보증 추산 : (2019년 보증실적)/12개월x7개월 = 18,780억원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며, 생활상권 기반사업 2기, 10개소의 상권 선정을 위한 4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음.

<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296	3,896	400
사 무 관 리 비	1,065	1,06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86	2,582	400
자치단체자본보조	250	250	-

-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은 6개월간의 기반 조성사업 후 3년간의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생활상권 기반사업 1기 8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이 중 5개소를 생활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세부내용 >

사업명	사업내용	
(광역형) 성장동력 기반구축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주민 소비의 중심이 되는 식품 업종 동네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중소농과 동네가게 직거래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운영
	공공마켓	4,500억원 규모의 공공구매 시장에 소상공인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마켓을 운영해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
생활상권 기반사업	손수가게	대량생산되는 가정간편식, 수입농산물·식품 등과 차별화를 위해 우리농산물로 상인이 직접 만드는 동네가게의 발굴·육성

사업명		사업내용
	커뮤니티 스토어	주민교류를 촉진하는 핸드메이드 공방 등의 동네가게 활성화 및 상권 공동화 방지를 위해 빈점포와 기존상점 활용 커뮤니티 스토어 조성
생활상권 육성사업	함께가게	동네가게를 중심으로 지역단체, 사회적경제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동네가게의 역할을 재정립
	혁신상인 스쿨	자생적 상인력 제고를 위해 소수의 상인그룹이 상점 경영·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상인 성장 지원 사업 추진
	우리동네 사람들	상품위주의 홍보에서 탈피, 상인·주민 이웃관계망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지역주민수요사업	생활상권을 이끄는 주체로서 주민의 성장을 위해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

- 2021년까지 40개의 생활상권을 선정·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코로나19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육성사업 7월 선정 예정).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생활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나, 1기의 기반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통한 2기 사업의 대상을 확대할 시급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1기 사업에서 기반사업 참여상권(8개) 중 절반 수준인 5개 상권만이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계획인 바, 선정되지 못하는 기반사업 대상지에 대한 별도의 출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바.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별설명서 73쪽)

- 공동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천만원 증가한 2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420	1,500	920
사 무 관 리 비	570	450	12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1,850	1,050	800

- 이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단지 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2단계는 공동 생산·소비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도약하고, ▶3단계는 공동 생산·소비로 산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임.

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1단계)	공동소비·공동생산의 경제공동체 형성 (2단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자조모임(협의체) 운영 · 사업 공급자 및 수요자 발굴 위한 한마당 등 행사 · 공동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 위한 사업 지원 · 단지내 유휴공간 등 활용 사업장 조성 및 장비임차 등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 특화 사업 등 복합 서비스 개발 ·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추가 연계사업 발굴로 사회 문제 해결 확산
최대 60백만원	최대 60백만원	최대 60백만원

- 2018년 시범사업(9개 단지)운영 후, 2019년 20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고 1단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1단계 사업에 13개 단지, 2단계 사업에 전년도 참여 단지 중 8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 20개 공동주택 단지를 추가로 선정·지원할 계획임.

< 2020년 같이살림 프로젝트 선정 단지 현황 >

번호	자치구	선정 지역지원기관	선정 단지	비고
1	동대문구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래미안아름숲	2 단계
			신성미소지움	1 단계
2	성북구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돈암코오롱하늘채	2 단계
			래미안길음 9 단지	1 단계
			월곡래미안 루나밸리	1 단계
3	마포구	(주)녹색친구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 단계
			상암월드컵파크 9 단지	1 단계
4	양천구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	목동현대 A 아파트	2 단계
			신정삼성아파트	1 단계
5	구로구	구로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천왕이펜하우스 4 단지	2 단계
			향동하버라인 3 단지	1 단계
			(향동하버라인 8 단지)	예비순위 1

번호	자치구	선정 지역지원기관	선정 단지	비고
6	관악구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관악	관악휴먼시아 1,2 단지	2 단계
7	송파구	퍼스트페이지일상문화협동조합	송파레미니스 1 단지	2 단계
			위례 포레샤인	1 단계
8	강동구	서울시립대 창업지원단	고덕리엔 3 단지	2 단계
			강일리버 7 단지	1 단계
9	성동구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텐즈힐 1 단지	1 단계
			신금호파크자이	1 단계
			성수금호 3 차베스트빌	1 단계
10	도봉구	사회적협동조합도봉이어서	방학신동아 1 단지	1 단계
11	은평구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다래마을	1 단계
예비	(서대문구)	(공생사회적협동조합)	(유원홍은)	예비순위 2

- 생활 속 문제 발굴부터 사업까지 전 과정에 주민 주도와 참여로 추진되면서, 참여 주민 대부분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호감이 증대된 것으로 보고됨¹⁶⁾.
- 그러나 올해 4월 신규 사업단지가 선정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추가 사업단지를 선정할 만한 시급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2단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3단계)하는데 있는 바, 신규 단지의 추가 지정보다는 선정단지의 단계별 성장에 집중해 세부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참여단지의 사업이 대부분 돌봄과 교육·먹거리 분야에 집중

16) 사업참여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9.12, 849명) - ‘사회적경제로 생활문제 해결’ 항목에 대해 81.1%가 긍정 답변

되어 있어, 여러 사례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81쪽)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의 운영에 기정예산 53억 1천 3백만원 대비 32억원 증액된 85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 간 위 탁 금	(x209) 8,513	(x209) 5,313	3,200

- 추경안을 통해 증액된 32억원은 우리동네 나눔반장(3억원), 코로나 대응 전략사업(4억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25억원) 등 3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 민간위탁금 세부산출내역 >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 추진 23,077,000원*13개자치구	=	300,000천원
○ 코로나 대응 전략사업 20,000,000원*20개사업	=	400,000천원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	=	2,500,000천원
- 자치구 코디네이터 인건비 2,199,307원*2인*4개월*10개 자치구	=	175,945천원
- 기타 제반 운영경비 2,500,000원*10개 자치구	=	25,000천원
- 공동 프로젝트 운영비, 사업개발비 15,000,000원*10개 자치구*10개 협업체	=	1,500,000천원
- 광역실행추진단 용역비(사회적경제기업 전환교육, 통합컨설팅, 홍보, 모니터링 등) 250,000,000원*1식	=	250,000천원
- 광역통합플랫폼 구축(앱개발, 메뉴얼 보급, 라이더연계 등) 500,000,000원*1식	=	500,000천원
- 사업관리 계약직 인건비(계약 나급 8호봉기준) 3,905,834원*6개월*2인	=	46,870천원
- 사무관리비(심사비 및 회의비 등) 364,167원*6개월	=	2,185천원
증감사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코로나19로 변화된 시민생활과 일상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제를 도출 기획하여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시정 및 계획 반영		

(1)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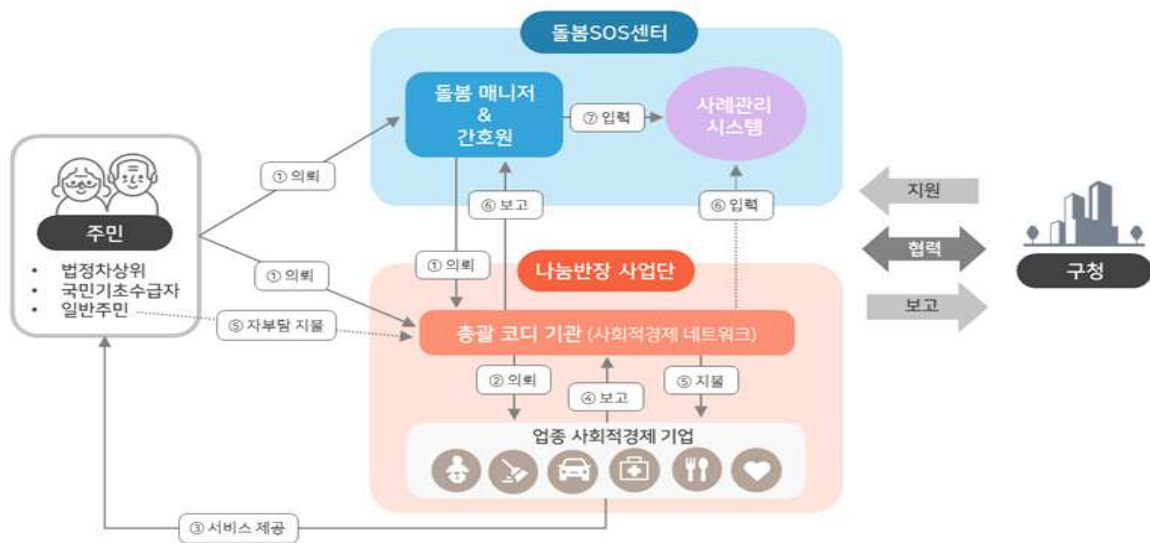
- 지역 내 주민들의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동 주민센터 내 ‘돌봄 SOS센터’를 설치하여 8대 돌봄서비스¹⁷⁾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시범사업으로 5개 자치구, 2020년 13개 자치구¹⁸⁾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17) 일시재가서비스, 단기시설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안부확인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정보상담서비스

18)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2019~), 강동, 광진,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중랑

- 이번 추경안은 돌봄 SOS센터가 설치된 13개 자치구 사경센터에 ‘우리 동네 나눔반장(이하 “나눔반장”)’ 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임.
- 나눔반장은 돌봄 SOS센터·수요자(주민)가 원하는 일상편의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함.

< 돌봄 SOS센터-우리동네 나눔반장 개념도 >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돌봄 SOS센터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반장의 역할 또한 활발해질 것임.
- 그러나 자치구별 1명인 나눔반장이 구민들의 다양한 일상편의서비스 수요와 사회적기업의 매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한편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46억원을 편성해 돌봄SOS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나눔반장 배치를 위한 추가 인건비가 소요될 것임.

(2) 코로나 대응 전략사업

- 사경센터는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의제 설정 및 추진 기업을 선정하여 도출된 현안을 실현하는 ‘전략사업개발’ 사업을 운영 중임.
- 이번 추경을 통해 4억원을 편성하여 코로나 대응 혁신사업 20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기업당 2천만원 내외).
- 그러나 현재 기정예산에 편성된 전략사업개발(업종협업사업) 예산을 활용해 전략사업 수행 기업 선정¹⁹⁾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바, 하반기 내에 추가 20개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됨.

(3)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

- 영세 소상공인들의 협업·규모화를 통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19) 규모화 및 협업화 지원사업 6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 1개 선정

- 자치구별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골목단위 영세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10명 내외를 1개 협업체로 조직해 사회적경제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임.
-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설립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역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됨.
- 사회적경제주체로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같이살림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됨.
 -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주거를 기반, 본 사업은 상권을 기반으로 함.
 - 긴급·일시적 지원을 넘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주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향과 사업의 의미는 공감함.
 - 그러나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규모화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현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상권 등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25억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 또한 신규 사업은 예산편성 전 심도깊은 고민과 촘촘한 계획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방침이 예산심의 직전 수립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됨.

- 유사한 구조의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경우 3개년 사업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밖에 세부사업 중 ‘광역통합플랫폼 구축’은 앱 개발 등 정보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 한편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기존 사경센터의 위탁금 53억 1천 3백만원 대비 60.2%가 증가된 바, 현재 센터의 인력과 조직으로 해당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사업과 예산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임.

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별설명서 86쪽)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모델 개발 등 지역단위의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사경센터(사업단 포함)에 대한 지원과 자치구 대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민기술학교’ 사업을 운영 중임.
- 추경안은 자치구별 1개 이상 사업을 목표로 17개의 주민기술학교 사업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80	3,380	1,300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 주민기술학교 신규 17개 사업 선정 76,470,580원*17개	=		1,300,000천원
- 매니저 채용 2,578,431*6개월*17명	=		263,000천원
- 수요 조사, 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2,200,000*5개월*17개	=		187,000천원
- 주민기술학교 교육비 및 실습비 10,000,000*5개월*17개	=		850,000천원

- 주민기술학교는 자치구 주도로 관내 사경센터 등을 활용하여 생활 분야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교육비,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임차비 등 운영 관련 제비용을 지원함.
- 상반기에 8개 자치구(11개 사업)를 선정하고 주민기술학교를 운영 중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주민기술학교 운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동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지원 금액	137.6	90	90	60	50	50	50	50
사업 1	주거관리 (집수리 등)	돌봄관리 (식생활)	주거관리 (집수리 등)	돌봄관리 (호스피스)	주거관리 (집수리 등)	주거관리 (집수리 등)	꿀벌강사 교육	패션봉제
사업 2	돌봄관리 (청소,수납)	주거관리 (집수리 등)	돌봄관리 (일상편의)					

- 주민기술학교를 통해 집수리, 돌봄 등 지역별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에는 공감하나, 추경을 통해 확대되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은 공감하기 어려움.
- 또한 상반기에 선정된 11개 사업 중 4개, 2019년 참여한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주거관리(집수리 등) 분야로 특정기술 분야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주민기술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한편 도봉구의 경우 현재 북부기술교육원과 연계해 별도의 집수리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4개 기술교육원 등 관내 협업이 가능한 유관시설들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 사회투자기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99쪽)

- 사회적경제기업과 주거·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에 30억원을 추가로 전출하고자 함.

< 사회투자기금 전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기 금 전 출 금	7,000	4,000	3,000

- 이번 추경을 통해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고용불안정 노동자 600여명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의 융자를 실시할 계획임.

< 고용불안정 노동자 긴급 소액 융자사업(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대상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 융자금액 : 500만원 이내 ▶ 융자금리 : 3% 이내 ▶ 융자조건 : 3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규모 : 30억원 ▶ 융자방법 : 사회적금융기관(수행기관)을 통한 채용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 사회투자기금에 별도 자원 확보, 사회적금융기관 무이자융자 - 사회적금융기관 : 고용불안정 노동자 대상 융자사업 시행
--

-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고용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기금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고용불안정 노동자 융자 지원대상인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은 사회적경제와의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바, 사투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사투기금의 코로나19 특별융자²⁰⁾가

저리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3%대의 융자지원이 어려움에 처한 고용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특히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는 법적 정의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규모와 추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가 다양해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소득 등 융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은 앱화면 캡처·통장사본 등 자격·소득감소 입증서류 다양하게 인정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선착순으로 지급하였음.
- 국내 고용불안정 및 취약계층을 위한 타 융자사업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비교적 자격이 명확하고, 대상의 규모가 추정가능함.

< 국내 고용불안정 노동자 융자사업 현황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생계자금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중사자대출	사회연대은행 긴급자금대출	아름다운재단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상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저소득 창업자 (수급자 등)	연소득 35백만원이하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 여성
용도	긴급 생활자금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생계자금	긴급 생활자금	긴급 생활자금	창업자금

구분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간접피해기업
융자한도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3억원 (채권잔액 기준)		
금리	0.5%	1.0%	1.5%
이자보전	2.5%	2.0%	1.5%
융자조건	2년거치 4년 상환조건		

20)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생계자금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중사자대출	사회연대은행 긴급자금대출	아름다운재단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한도	5백만원 이내	20~30백만원	15백만원 이내	5백~15백만원	3백만원 이내	40백만원 이내
금리	2.2%	1.8%	10.5% 이내	2.5~3%	3%	1%
상환	3년 원리금균등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3~5년 원리금 균등	3년 원리금 균등	2년 원리금 균등	3개월 거치 8년 균등분할

- 또한 용자에 대한 대손책임이 수행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수행기관이 높은 대손 책임을 자체부담하면서 용자를 시행할 것인지 의문시 됨.

차.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별설명서 103쪽)

-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103억원을 증액한 289억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8,900	18,600	10,300
사무관리비	300	3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600	18,300	10,300

- 서울시는 현재까지 25개 자치구에 총 2,395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이는 초기 목표였던 발행목표액 2천억원을 초과한 수치임.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회복 대책으로 최대 20%(15% 할인, 5% 캐시백)까지 상품권의 할인율을 대폭 확대한 결과 판매가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2회 추경을 통해 50억원을 증액한 바 있음.
- 이에 상반기 발행 추가경비 23억 1천 6백만원과 하반기 추가발행분 79억 8천만원을 합한 103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추가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처 : 4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 - 발행액 : 24,000,000천원 - 소요예산 : 24,000,000천원×9.65% (할인보전금 8%, 발행수수료 1.65%)=2,316,000천원 ○ 2020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처 : 24개 자치구(종로구 제외) - 발행액 : 120,000,000천원 - 소요예산 : 120,000,000천원×6.65% (할인보전금 5%, 발행수수료 1.65%)=7,980,000천원

- 자치구는 상품권의 할인분 중 2%만을 보전하고, 잔여 할인분은 모두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목표 대비 초과 발행된 상품권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3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하반기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1,38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추가 발행될 예정(할인율 7%)이며, 할인보전금(5%)과 발행수수료를 포함해 79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음.

< 서울사랑상품권 4차 추가발행 계획(안) >

-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종로구 제외)
- ▶ 지원액 : 103억원(발행수수료 1.65%, 할인보전금 5%)
- ▶ 발행규모 : 1,380억원
- ▶ 할인가매한도 : 월 100만원(~7.31.) → 월 70만원(8.1.~)

-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실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한 결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할인율이 7%로 감소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연간 발행목표액을 초과한 만큼 판매보다는 상품권의 사용 독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또한 상품권이 선구매·후소비하는 구조로 할인보전금에 대한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며, 향후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액을 넘어 상품권을 초과발행하고, 사후에 이를 보충하는 추가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